



한국틴스타

2010년 9월

제23호

www.teenstar.or.kr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당신이 무어라고 하던, 귀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의견에 반항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반대로하기로 결심했고, 타인들이 저를 다른 방법으로 설득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었죠. 그러나 저는 저와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저와 대화하기에는 너무 거칠다고 내버려두고 떠나지 않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게 되고 그들이 자라서 십대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태도까지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누군가가 돌봐주고 있다는,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는, 그 곳에 있겠다는, 곁에 있어주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십대가 원하는 것이겠죠.

십대는 당신과 다를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욕을 하거나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당신이 거기

있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또한 십대가 그 앞에 던져진

모든 미끼에 넘어갈 수 없듯이 어른도 현관에 깔린 신발털이 같은 존재로 십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하셨죠.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서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사물에 대해 유머 감각을 갖게 되고 많은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그런 후에 훌쩍 성숙된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이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다고요.

저는 이제 저 자신에 대해-저에 대해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더 이상 십대가 아니라고 알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위 글은 정신과 의사 로버트 콜스 박사가 내담자와 상담 과정 중에 받은 편지글 중 일부입니다.
(틴스타 교재 340쪽에서 발췌)



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을 이수하고 나서

곽용승 신부

제75차 워크숍 수료/부산가톨릭신학대학교

십 수 년 전 내가 신학생일 때, 학생회 일을 하면서 신학교에 성(sexuality)교육을 위한 특강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미래의 사목자에게 성(性)에 대한 이해와 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때 책임 신부님께서 이 의견에 대해 “성(sex) 교육은 배워서 뭐하게!”라는 부정적 표현을 하였고 그리하여 이 의견은 사라지게 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성교육의 내용이 폭넓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성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정도의 수박 겉핥기식의 강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면 책임 신부님의 부정적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었으나 하느님께서 주신 성에 대한 총체적 이해(몸의 신학)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교육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었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부산 가톨릭 신학대학에서도

대학원 2년과 부제반을 대상으로 틴스타에서 교육하는 총체적 성교육이 이루어졌고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틴스타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육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총체적 성교육이 하느님과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고, 하느님과 관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인간의 총체적 성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 더 세부적으로는 몸의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되었고 우리의 몸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느님의 생명을 담고 있으며, 인간의 인간됨인 인격을 표현한다. 이 인격적 측면의 절정인 사랑이 우리의 몸을 통해 표현되고 나누게 되며, 이 사랑을 통해 하나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우리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하느님과 관계에서 이해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몸의 신학이라는 표현은

훌륭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결국 몸의 신학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사랑의 나눔과 일치라는 측면에서 통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사랑의 나눔과 일치하는 생명으로 열려져 있음을 명백히 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틴스타의 총체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었다. 왜 가톨릭의 가르침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제시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왜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선을 표현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의문은 점차 교육을 이수해가면서 해결되었다. “물고기를 한 마리 준다면 하루 밖에 살지 못하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한평생 살아갈 수 있다”라는 유대인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지식의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순한 하나의 지식을 주입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 삶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틴스타의 총체적 성교육은 성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통해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그 근본적 원리(생명과 책임, 인격적 사랑)를 바라보게 하고 이 원리에 토대해서 보다 성숙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측면이

다른 성교육과는 달랐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나에게서 새로웠다. 틴스타 교육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일방적 제시를 넘어 스스로 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젖어 들 수 있게 하는 교육인 것 같다. 따라서 틴스타 교육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하느님의 백성이 자신의 몸과 이 몸과 관계를 맺는 모든 관계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 몸의 상호증여와 상호 책임과 일치하는 하느님께로 향해야 함을 확인케 해주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성의 총체적 의미는 사랑의 나눔과 일치에 토대를 두면서, 하느님의 생명 창조에 협조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 끝으로 틴스타 교육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0년 틴스타 청년 활동 소식

생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김희영 틴스타 교사

여름을 알리는 장맛비가 시원스럽게 내리더니 하루가 다르게 태양이 뜨거워졌다. 그 덕에 나무들이 녹색의 푸르름을 한층 더 지아내어 보는 이에게 풍요로움을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7월에 2박 3일 동안 음성 꽃동네에서 '제 1회 전국 생명대회'와 '프로라이프 청년회 발대식'이 있었다. 이 생명대회 안에서 각기 다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고, 생명대회를 통해 생명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크게 깨닫게 되었다. 나이가 든 생명과 아직 어린 두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생명만 살릴 수 있다면 난 망설임 없이 순번을 떼겨 어린 생명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 어린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어떠한 생명도 될 가치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이렇게 모든 생명이 소중한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고, 뱃속의 생명을 빼앗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을 탓 할 수만은 없다.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올바른 깨달음을 누군가가 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었다면 최악의 순간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명대회 안에서 청년 프로라이프 청년들이 앞으로의 방향을 잡게 된 예화 하나가 떠오른다. 어느 착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 너무나도 험벗고 배고픔으로 지친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이 사람은 이 가없는 사람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저 가없는 사람을 돌보아줄 천사를 내려주세요." 그러자 곧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너를 보냈느니라." 또, 성경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네 사랑합니다."하고 대답하자, 주님은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고 하셨다.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프로라이프 청년들은 "네 주님, 이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하고 마음을 모아 발대식을 통해 대답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주님이 보낸 천사가 되어 함께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전국 생명대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틴스타 교사 송석규



전국 생명대회에서 발대식을 한 프로라이프 청년회

틴스타 교사로 내딛은 첫 걸음

최강욱 제34차 워크숍 수료

K,Y,D. 한국청년대회 안에서 틴스타 홍보를 위해 틴스타 선생님들과 함께 임진각 평화누리동산으로 향했다. 2007년 틴스타 워크숍을 받고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틴스타 활동이었다. 전국 생명 대회와 한국프로 라이프 청년회에 틴스타의 젊은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틴스타에 관한 활동은 처음이었다. 처음이라는 두려움과 설렘에 떨렸지만 부푼 기대로 마음은 들떴다.

짙은 오후. 가만히 서 있어도 푹푹 떨어지는 땀방울을 닦으며 생명의 탄생 과정을 담은 사진을 보기 좋게 전시하고, 틴스타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리플릿과 자료를 정리해 놓았다. 청년들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자 갑작스레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더위를 싹 날려 보내는 시원한 단비였지만 우비를 입고 활동해야 하는 참가자들과 준비해 놓은 많은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까 봐 걱정이 앞섰다. 걱정도 잠시 비가 잦아들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였다. 틴스타를 소개하면서 생각 보다 틴스타를 알고 있거나 배웠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다. 틴스타라는 성교육이 있다는 걸 들어봤던 사람들, 틴스타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틴스타 배지를 나눠 주며 틴스타를 소개했다. 다른 이들에게 어떤 것을 소개하는 것이 해보지 않은 일하기에 낯간지럽기도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틴스타입니다. 들어오셔서 둘러보시고 듣고 가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틴스타를

외치며 부스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막상 들어와서 사진을 둘러보고 틴스타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기면 사비노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의 팔을 끌며 소개를 부탁드렸다. 아마도 선생님들의 목이 쉬는 건 나 때문이 아닐까? 틴스타 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조금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지? 내가 자격이 있을까?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소개를 해 보았다. 소개이야기를 다 듣고 고맙다며 방긋 웃어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뿌듯함과 자신감이 생겼다. 3시간 남짓 주어진 홍보의 시간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비바람이 부는 속에서 한국교회의 청년들의 열기는 대단했으며 틴스타에 대한 관심과 열의도 높았던 것 같다.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틴스타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다면 생명의 소중함과 성(性)에 대한 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고 틴스타를 널리 알렸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많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번 활동을 계기로 틴스타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다. 그동안 못했던 심화과정에도 참여해 보고 해마다 열리는 틴스타 재교육에도 참여해야겠다. 선생님들 간에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나아가 틴스타 교사로서 부끄럼 없이 학생들을 대하고 청년들과 함께하고 싶다. 틴스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 수녀님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한국 청년대회 때 마련된 틴스타 부스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 한경욱 교사

※ 2010년 한국틴스타 전국 교사 모임 안내

한 해 동안 한국틴스타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틴스타 교사로서 새롭게 재충전할 수 있는 한국틴스타 전국 교사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0년 10월 2일(토) 오후 2:00 ~ 3일(일) 오후 4:30
- 장 소 : 서울 남산 국제유스호스텔
- 접수기간 : 2010년 9월 1일 ~ 14일 (당일 접수 불가)
- 참가비 : 3만 5천 원(우리은행 1005-500-998645 예금주: 한국틴스타)

※ 2010년 정교사 명단

고미진, 김기환, 김 율리아, 김상근, 김혜선 수녀, 나영훈 신부, 서은주 수녀, 서형석, 신새롬, 심수연, 이은정, 이추성, 이회정, 정현옥, 조수현, 황윤정

*정교사 명단에 포함된 교사는 ‘2010년 한국틴스타 전국 교사 모임’에 참석하셔야만 정교사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사 명단에서 누락된 교사가 있으시면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틴스타 낙태 후 치유 프로그램 안내

- 주관 및 주최 : 한국틴스타
- 대 상 : 낙태 경험이 있는 분(선착순 10명)
- 문의 및 접수 : 전화 02-755-2629
- 장 소 : 경기도 가평 성 빈센트 환경 마을
- 일정(2박 3일, 첫째 날 오후 2시 시작, 마지막 날 오후 1시 30분 마침)

2010년 9월 14일(화) ~ 16일(목)
2010년 10월 19일(화) ~ 21일(목)
2010년 11월 16일(화) ~ 18일(목)
2010년 12월 7일(화) ~ 9일(목)



2010년 하반기 진행 현장

분류	장소	담당교사	시작일	지역
학교	인천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모임(총)	이정림 선생	2010년 6월 27일	인천
	신성여자고등학교(고)	강소현, 권경애, 고경옥, 고경심, 금미경 김정민, 김현숙, 손문희 선생	2010년 6월 11일	제주
시설	화곡성모생활공동체(중)	임복규 선생	2010년 7월 21일	서울
	홀트아동복지회 아름뜰(미)	강민숙 선생	2010년 4월 30일	
	동방사회복지회 세움누리의 집(중)	강민숙 선생	2010년 5월 17일	인천
	군위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중)	나영훈 신부	2010년 6월 13일	대구

2010년 하반기 종료 현장

분류	장소	담당교사	시작일	종료일	지역
학교	백석중학교(중)	고경미, 김수경, 김상근 정선미, 정혜경, 임복규 선생	2010년 3월 23일	2010년 6월 16일	서울
	중화고등학교(고)	김기환, 최명숙 선생	2010년 4월 12일	2010년 7월 12일	
	하비에르국제학교(고)	김혜정, 임복규 선생	2010년 3월 8일	2010년 6월 9일	
	인천기톨릭신학대 학교(총)	하정용 신부, 강명주(여성 분반)선생	2010년 3월 22일	2010년 5월 20일	인천
	청원 양업고등학교(고)	박인규, 이은숙 선생	2010년 3월 26일	2010년 7월 2일	충북
	대구기톨릭대학교(총)	서은주 수녀	2010년 3월 24일	2010년 6월 9일	대구
성당	서울대교구 청담동성당(총)	배미애 수녀	2010년 5월 14일	2010년 8월 6일	서울
		김혜선 수녀	2010년 5월 13일	2010년 8월 12일	
	수원교구 명학성당(총)	김명숙 선생	2010년 3월 4일	2010년 5월 13일	경기
	의정부교구 용현동성당(중)	김율리아, 서형석, 신새롬 심수연, 조수현 선생	2010년 4월 18일	2010년 7월 11일	
	의정부교구 용현동성당(고)	이은정 선생, 하정용 신부	2010년 3월 28일	2010년 7월 18일	
	인천교구 삼산동성당(고)	이정림, 강성실(남학생 분반)선생	2010년 3월 20일	2010년 7월 17일	인천
	대구대교구 인평동성당(총)	백민주 선생	2010년 4월 16일	2010년 6월 11일	대구
		도희숙 선생	2010년 4월 15일	2010년 6월 11일	
대구대교구 복자성당(총)		공수득 선생, 김수선 수녀	2010년 3월 27일	2010년 7월 10일	
시설	마자렐로센터(고)	이정림 선생	2010년 4월 20일	2010년 7월 6일	서울
	신월청소년문화센터(중)	김기환 선생	2010년 4월 1일	2010년 6월 3일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중)	정원배, 최명숙 선생	2010년 3월 12일	2010년 6월 11일	인천
	인천 새터민지원센터(중)	김희영, 안병욱 선생	2010년 3월 6일	2010년 5월 22일	

※ 중 : 중학교 프로그램, 고 : 고등학교 프로그램 총 :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 미 : 미혼모 프로그램, 여 : 여학생 프로그램, 남 : 남학생 프로그램

알림 Notice



☆ 2010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종료 현황

제73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본부

- 주 최 : 한국틴스타 본부
- 주 관 : 한국틴스타 본부
- 기 간 : 2010년 6월 26~27일, 7월 3~4일(주말)
- 장 소 :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제74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광주

- 주 최 : 광주대교구 가정사목국
- 주 관 : 한국틴스타 본부
- 기 간 : 2010년 7월 5일 ~ 8일
- 장 소 :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제75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수원

- 주 최 : 수원교구 청소년국
- 주 관 : 한국틴스타 본부
- 기 간 : 2010년 7월 19일 ~ 22일
- 장 소 : 수원 가톨릭청소년문화원

제76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인천

- 주 최 :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 주 관 : 한국틴스타 본부
- 기 간 : 2010년 8월 28일~29일, 9월 4일~5일
- 장 소 : 인천교구 가톨릭회관

☆ 한국틴스타 전국 생명대회 참가

2010년 7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생명의 문화를 향하여! 태아보호, 장기기증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전국 생명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배 마리진 수녀와 교사가 참석하였고, 안병욱 선생의 틴스타 단체 소개와 송석규 선생의 강의(주제: '성의 의미와 자연출산조절법')가 있었습니다.

☆ KYD 전국 청년대회 참가

2010년 8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의정부 임진강변에서 전국 청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틴스타 소개를 위한 부스에서 청년 교사들의 열정적인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예수의 꽃동네 수도회 이지현 수녀님(제34차 워크숍 수료/틴스타 교사)이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김무영 틴스타 교사(제43차 워크숍 수료)가 결혼하였습니다.

☆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CMS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거나 본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후원통장 : 우리은행 (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5-100-998647
- 국민은행 (예금주: 한국틴스타) : 875401-01-517401
- 신한은행 (예금주: 한국틴스타) : 306-01-261337
- 외환은행 (예금주: 한국틴스타) : 611-016668-535

발행일 : 2010년 9월 1일

발행처 : 한국틴스타

주 소 : 서울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519호

전 화 : 02)755-2629

발 행 인 : 배마리진 수녀

홈페이지 : www.teenstar.or.kr

E-mail : kteenstar@hotmail.com

팩 스 : 02)727-2243